

# 지망 대학 맞춤형 공부로 '100일 역전'

**수능 D-100일 학습법**

**핵심 개념 기출문제로 숙지**

**모평 경향 철저히 분석해야**

**절대평가 영어 '불수능' 가능성**

**■과목별 학습 전략**

국어	일주일 한 세트씩 문제 풀이
수학	각 단원 중요 공식·개념 이해
영어	EBS 연계 문항서 시간 확보
사탐	교과서 그림·지도·그래프 숙지
과탐	실생활 등 다양한 유형 문제 풀이

올해 11월 16일 치러질 2018학년도 대학 수능능력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폭염으로 공부 의욕과 능률이 떨어질 수 있지만 입시 전문가들은 100일간 마무리 학습전략을 어떻게 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절대평가가 실시되는 영어영역은 90점을 넘으면 100점 같은 1등급을 받기 때문에 맞출 수 있는 문제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지망대학 따라 '맞춤식' 공부해야=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가장 필요한 것은 냉정하게 본인의 실력을 점검하는 것이다.

인터넷 강의를 오래 듣거나 기계적으로 많은 문제풀이를 하는 것은 점수로 꼭 연결된다고 볼 수 없다.

그동안 풀었던 것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서 개념과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한 문제, 풀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구분해보고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분석해야 한다.

수능 각 영역의 핵심 개념은 반복적으로 출제되므로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풀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본인이 잘 틀리는 문제를 모아놓으면 대부분 비슷한 유형과 개념의 문제인 경

우가 많기 때문에 오답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에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6월에 실시된 1차 모의평가와 다음 달 치러질 2차 모의평가는 11월 수능의 출제 경향을 보여주는 시험이므로 이때 나온 문제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지망하는 대학과 모집단위에서 높은 비중을 두는 영역에 시간을 더 투자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광주 광덕고 신하돈 국어 교사는 "우선 상위권 학생은 실전문제 위주로 풀면서 고난도 문제를 집중공략해야 한다. 수능 전까지 일주일에 한 번 꼴로 한 세트씩 꾸준히 푸는 게 관건"이라며 "중위권은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 지문의 자료 해석 능력을 확장하고 하위권은 EBS 연계교재 통해 기본 개념을 익히는 게 좋다"고 말했다.

◇수학은 '개념정리' 필수=6월 모의평가를 바탕으로 보면 국어영역의 경우 독자가 가장 변별력이 높았던 영역으로 꼽힌다.

3개로 구성된 긴 지문에 6문항이 달려있는 형태도 출제됐기 문에 긴 지문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분석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

소장은 "1800자 이상의 제시문을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하고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찾아내는 연습을 계속해야 한다"고 전했다.

수학의 경우 이른바 '수포자'(수학을 포기하는 학생)가 생기는 등 학생들 간에 성적 차이가 크게 나는데 수학을 포기할 경우 다른 과목에서 만회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공식을 포함해 각 단원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개념을 이해하고 꼼꼼하게 계산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풀이 역시 모의고사 형태보다는 단원별로 정리한 문제를 중심으로 개념 위주의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

상위권 학생들은 EBS에서 연계되지 않은 고난도 문항에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 다른 문항을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해야 한다.

중위권 학생들은 새로운 유형보다는 EBS 연계 출제 유형을 복습하고, 하위권 학생은 모의평가와 EBS 교재를 바탕으로 기본 유형의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좋다.

광주 조대여고 정재훈 수학 교사는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 준비를 달리해야 하는데, 상위권은 어려운 문제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에 따라 등급이 구별된다. 따라서 기출문제와 난이도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집중 공략하면서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해야 한다"며 "중하위권은 EBS 연계교재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자신의 수준에 맞는 문제를 반복해서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어 '방식 글물'=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역시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사회탐구의 경우 교과서에 나온 그림·

지도·그래프 등을 활용해 내는 문제가 많으므로 이런 자료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런 자료가 어떻게 활용됐는지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시사적인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공부하다 지치면 신문 기사를 보며 사회적인 이슈를 알아두는 것도 좋다.

과학탐구에서는 기본 개념에 대한 문제는 물론,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출제된다.

교과의 개념이 다양한 소재·자료와 함께 출제되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접해보아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는다.

영어영역은 실수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고정적으로 나오는 빈칸 추론 문제, 문장의 위치 파악 등 쓰기 문제는 논리력을 요구하는 고난도 문제이므로 다양한 지문을 공부하면서 반복적으로 연습할 필요가 있다.

광주 대동고 오정욱 영어 교사는 "(이번에)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되지만 변별력 있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절대평가 절대 쉬운 수능은 아니다. 우선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 인지해야 한다"면서 "학생들이 EBS 연계교재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되, 직접연계 문항에서 최대한 시간확보를 해야 한다. 평소 지문공부할 때 한 문장으로 요약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성호 중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영어영역은 1점 차이로 등급이 갈릴 수 있으므로 실수를 줄이기 위해 실전처럼 시간을 재며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며 "중하위권 학생들은 듣기와 어휘 연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종행기자 golee@연합뉴스

## “동강대 전체 학과 특성화...경쟁력 높일 것”

**이민숙 총장 취임**

“하지만 강한 명문 대학 만들겠다”

“동강대학교를 ‘작지만 강한’ 최고의 명문 사학으로 만드는 데 학교 구성원과 한 마음 한 뜻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강대학교 제14대 이민숙(62·사진) 총장이 취임했다.

신임 이민숙 총장은 7일 학교 율곡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전국 모든 대학이 위기라고 하지만 뚝뚝 뚝뚝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은 없다”며 “41년 전통의 동강대를 사학의 명문 대학으로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입시·총원·취업의 균형 있는 3박자로 대학의 퀄리티를 높일 것”이라며 “특히 전체 학과를 특성화학과로 운영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동강

대학교의 대표적 브랜드 학과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들의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위해 교직원들이 모범을 보이고, 학교 발전기금 활성화 등을 통한 학교 경쟁력을 강화해 동강대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이 총장은 수명여대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행정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전남대 경영대학원과 고려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GIST Tsinghua-SEM(중국 칭화대학교 경제관리학원) Techno CEO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2005년 학교법인 후성학원 이사, 2011년 학교법인 후성학원 이사장을 역임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대학교 여성공학4.0인재양성 사업단이 최근 진행한 '비즈니스 모델' 캠프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대 제공>

## 목포대, 의대 유치 본격화

### “서남대 폐교 땀 서남권 의대 신설해야”

목포대학교가 의과대학 유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7일 목포대학교(총장 최일)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숙원인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는 교육부가 최근 학교법인 서남학원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한 서남시립대와 삼육학원에 최종 수용 불가를 통보한데 따른 것이다.

목포대는 전남도와 목포시, 박지원·윤소하 국회의원의 등 정치권과의 유기적인 협조, 지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의과대학 단독유치를 원칙으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목포대는 현재 자치단체장과 박지원·윤소하 등 지역국회의원, 지역 의료인 등으로 2016년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 조직위원회'를 새롭게 재정비해 활동하고 있다.

지난 2917년에는 '국립목포대학교 지역인재와의 대화' 행사에서 지역민과 목포대의 열망을 담은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의지'를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게 적극 알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듣고 깊게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얻은 바 있다.

전남지역은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의료 불모지역이다. 의과대학 유치는 전남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의 하나다.

목포대는 서남대의 의과대학은 기존 의과대학으로의 흡수가 아닌, 의료난후지역의 의과대학 신설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일 총장은 "의료난후지역인 전남도에 소재한 목포대학교에 반드시 의과대학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자 penfoot@



방학 동안 내공 쌓기 동신대학교(총장 김필식)가 최근 진행한 '동신반딧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이 프로그램은 교수와 학생들이 대학의 지원을 받아 전공기초, 전공심화, 자격증 대비 스테디를 하는 방학중 교육과정이다. <동신대 제공>

## 미래 여성 공학자들, 아이디어 토크

### 전남대 '비즈니스 모델' 캠프

전남대학교 여성공학4.0인재양성 사업단(단장 한은미·화학공학부 교수·이하 'WE-UP사업단')이 '비즈니스 모델(BM)' 캠프를 진행했다.

'WE-UP'(WE-UP: Women in Engineering Undergraduate leading Program) 사업단은 지난달 25일부터 최근까지 르호봇G캠퍼스(서울)에서 전남대 공과대 및 공학대 학생을 대상으로 제2회 '비즈니스 모델 캠프'를 개최했다. 사업단은 지난 1월에도 이 캠프를 개최한 바 있다.

캠프는 공대생들을 급변하는 지식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창의력과 융합 능력,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

재로 성장하게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학생들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Business Model Canvas)에 대한 개념이해를 바탕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해 발표했다.

또한, '스타트업' 성공사례로 꼽히는 김현창(Funtents 대표이사), 최은석(₩스몰브릿지 대표이사) 등의 특강도 진행됐다.

사업단 단장인 전남대학교 한은미 교수는 "WE-UP 사업은 참여 학생들과 학과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해 만족감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미래의 여성엔지니어 양성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시물,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5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스케이**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